

구조적·문화적 특성의 차이를 통한 청소년비행의 원인고찰 — 세 인종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 성 식*

- I. 이론적 논의 : 차별접촉이론과 사회통제이론
- II. 구조적·문화적 특성에 따른 두 이론의 차별성
- III. 모델구성과 가설정립
- IV. 자료 및 측정
- V. 분석결과
- VI. 결론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발견하려는 기존 이론가들의 노력은 모든 유형의 비행을 설명할 수 있으며 어느 사회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이론을 구성하려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는 독특한 문화적, 구조적 특성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일반화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비록 일반이론의 구성이 가치있는 작업이지만, 여기서는 서로 상이한 집단간의 구조적, 문화적 차이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비행의 원인의 차별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그 기본목적을 둔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이론들중 그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 왔던 사회통제이론 *social control theory*과 차별접촉이론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 초점을 두어, 이 두 이론이 상이한 구조적, 문화적 특성을 갖는 상이한 집단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성을 지니게 되는지 혹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본 연구는 특히 두 이론을 미국과 한국사회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 미국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보다 발전된 서구 선진사회라는 점에서, 또한 두 나라는 동·서양문화라는 차이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사회는 서로 상이한 언어와 문화를 지닌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사회인데 반하여, 한국사회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사회라는 점에서 서로 상이한 구조적, 문화적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두 이론을 상이한 사회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또한 이론의 일반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내에서의 상이한 구조적, 문화적 특성을 갖는 상이한 인종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미국사회내의 백인집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과 흑인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결국 본 연구는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을 상이한 세 집단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 두 이론이 모두 어느 사회,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일반성을 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두 이론은 상이한 집단간의 구조적, 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두 이론의 일반성을 비판하고자 하며, 구조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비행의 원인의 차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이론적 논의 : 차별접촉이론과 사회 통제이론

청소년비행 혹은 일탈, 범죄의 원인에 관한 이론중 구조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대표적인 거시이론으로는 Durkheim과 이후 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근대화이론 *modernization theory*, Merton (1938)의 아노미 *anomie* 혹은 긴장이론 *strain theory*, Cohen(1955), Wolfgang과 Ferracuti (1967)의 하위문화이론 *subculture theory*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대화이론은 사회간의 산업화 혹은 도시화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범죄율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노미이론과 하위문화이론은 하층 혹은 흑인집단이 각각 그 사회구조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집단들과 범죄율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시이론은 동일한 구조적,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사회 혹은 집단내의 개인들간의 범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게 되는데, 즉 어떠한 이유로 개인들은 구조적, 문화적 특성에 서로 상이하게 반응하

게 되는지, 어떠한 이유로 열악한 구조적, 문화적 특성에서도 어떠한 개인들은 범죄 혹은 비행을 하지 않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거시적 특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이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이론이 요구되는데, Sutherland(1947)의 차별접촉이론과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이 그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과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은 서로 상이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상이한 원인적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통제이론은 합리적 인습사회 *conventional society*를 가정하는 반면 차별접촉이론은 사회내의 규범의 갈등 *normative conflict*을 가정한다. 범죄의 원인설명에 있어서 사회통제이론은 개인의 인습사회와의 유대 *social bond*의 정도를 강조하는 반면, 차별접촉이론은 개인의 범죄행위유형 혹은 범위반에 관련된 정의 *definition*의 습득정도를 강조하고 있다.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 의하면 범죄 및 비행은 사회내의 규범의 갈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규범의 갈등은 사회가 다양한 문화와 행위유형을 지닌 다양한 집단에 의해 구성될 때 존재하게 되는데, 사회내에 범위반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이 공존한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은 이러한 범죄행위유형과 반범죄행위유형에 동시에 둘러싸이게 되고 개인이 반범죄행위유형보다는 범죄행위유형에 더욱 노출되고 그와 관련된 가치, 동기, 및 태도를 학습하게 될 때 범죄 혹은 비행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개인의 범죄행위는 범위반에 관련된 정의의 학습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¹⁾

거시적 수준에서 볼 때 차별접촉이론은 차별사

1) Sutherland 와 Cressey에 의하면 사람들이 단지 범죄유형에 접촉하게 됨으로써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범죄행위유형과

회조직 *differential social organization* 과정을 강조한다. 즉 집단 혹은 사회가 범죄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그 범죄율이 결정된다고 본다. 즉 개인적 수준에서의 범죄행위는 차별접촉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집단 혹은 사회의 범죄율의 차이는 그 집단 혹은 사회가 범죄 혹은 반범죄행위유형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Sutherland and Cressey 1978 : 83). Sutherland and Cressey(1978 : 101)에 의하면 중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산업화의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가 조화, 일치되어 있고 행위유형이 일정하여 낮은 범죄율을 보이는 반면, 미국과 같은 이질적이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수많은 범죄하위문화의 발달로 그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범죄행위유형에 더욱 노출하게 되고 다른 사회에서보다 상대적으로 그 범죄율은 높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내에서도 집단간의 범죄율은 다르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백인과 비교해 볼 때 미국흑인들은 범위반에 대해 부정적인 정의(반범죄행위유형)보다는 긍정적인 정의(범죄행위유형)에 보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한다(1978 : 147). 마찬가지로 차별접촉이론은 상이한 계층, 지역, 연령집단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차별접촉이론은 차별사회 혹은 집단조직으로 인해 사회 혹은 집단간의 범죄율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 혹은 집단내에서의 개인의 범죄행위는 범위반에 관한 정의의 학습 혹은 내면화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미국흑인과 백인의 범죄율에는 차이를 보이나 미국흑인뿐만 아니라 미국 백인이 범위반에 관한 정의에 접촉하게 되면 그들은 범죄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차별접촉이론은 어느 사회 혹은 집단성원내의 개인의 범죄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성을 가정하고 있다(Matsueda and Heimer 1987).

차별접촉이론과는 반대로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은 사회내에 규범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기 보다는 단지 하나의 인습적인 도덕질서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더우기 차별접촉이론이 범죄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범죄동기의 차이를 중요시하는 반면, 사회통제이론은 개인의 범죄동기는 일정하다고 보며 개인의 범죄행위는 인습사회와의 유대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즉 일정한 범죄동기를 가진 개인이 그 동기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사회와의 유대마저 약화되었을 때 그는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Hirschi에 의하면 사회와의 유대는 크게 인습사회와의 애착 *attachment*, 관여 *commitment*, 참여 *involvement*, 신념 *belief* 등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는데, 애착이란 중요한 타자(부모, 선생, 친구)와의 애정적 결속, 관여는 개인의 인습사회에 대한 투자, 참여는 인습사회에 시간적으로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의 정도, 그리고 신념은 인습사회의 법 혹은 사회규범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결국 개인의 인습사회에 대한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가 범죄를 하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며 그 정도가 낮을수록 범죄를 하게 될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 주장한다.

비교해서 범죄행위유형에 상대적으로 더욱 노출, 접촉하게 될 때 범죄자가 된다고 본다(1978 : 84). 이러한 의미에서 차별접촉이론은 범죄자는 인습사회와 격리되어 범죄행위유형만을 학습한다고 주장하는 하위문화이론 *subculture theory*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Hirschi는 그 이론의 거시적 특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적지만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통제이론은 그 이론의 한 맥락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해체이론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Kornhauser 1978). 사회해체이론은 지역별로 사회통제 혹은 사회유대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에 따라 그 범죄율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흑인과 백인의 범죄율의 차이는 그 인종적 특성보다는 그들이 이따한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른 그 사회유대의 정도의 차이로 인해 결정된다고 한다(Shaw and McKay, 1969 : 160-162). 마찬가지로 사회간의 범죄율의 차이 또한 그 사회성원들간의 사회결속, 유대 정도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Hansmann and Quigley, 1982 ; Gartner 1990).

즉 사회통제이론은 사회해체이론을 통해 사회 혹은 집단간의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지만, 차별접촉이론과 마찬가지로 사회 혹은 집단내의 성원들의 범죄행위는 그 개인의 인습사회와의 유대의 정도에 결정된다고 하며, 이는 어느 집단의 성원에도 적용된다고 하여 그 일반성을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비록 미국흑인은 백인보다 사회유대의 정도의 차이로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갖게 되나, 미국백인이나 미국흑인 각 집단내의 개인들의 범죄행위는 사회유대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Hirschi, 1969 : 69-70 ; Matsueda and Heimer, 1987 : 828).

결국 차별접촉이론은 사회 혹은 집단간의 범죄율의 차이를 그 사회 및 집단간의 범위반에 관한 정의의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사회통제이론은 사회유대의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각 사회 혹은 집단내의 개인의 범죄행위는 각각

개인의 범위반에 관한 정의 혹은 사회유대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II. 구조적·문화적 특성에 따른 두 이론의 차별성

본 연구는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을 서로 상이한 집단 혹은 사회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이론들의 일반성을 고찰하려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은 각기 어느 사회 혹은 집단내에서의 개인의 범죄 혹은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성을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두 이론이 상이한 문화적 속성을 지닌 집단의 성원과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 집단의 성원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그 이론들의 일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문화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문화는 크게 집합주의 *collectivism*와 개인주의 *individualism* 문화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집합주의문화에서는 집단의 목표, 성원간의 상호의존, 집단규범에의 동조를 강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목표, 개인의 독자성, 개인의 규범을 강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한다(Triandis et al., 1988 ; Triandis, 1989). 집합주의 문화를 가진 사회는 상대적으로 동질적 *homogeneous*이며 사회 혹은 집단성원들의 관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반면, 개인주의문화를 가진 사회는 상대적으로 규범이 명백치 않고 복잡하여 이질적 *heterogeneous*이며 집단규범에의 동조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한다. 집합주의문화를 가진 동질적인 사회에서는 사회성원들이 복잡, 다양하고 일정치 않은 행위규범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정하고 인습적인 행위규범 속에 놓

여 있게 된다.

이러한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문화에 관한 논의는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의 기본가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통제이론은 사회의 합의적 인습사회를 기본 가정으로 하는 반면, 차별접촉이론은 사회내의 규범의 갈등을 그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통제이론이 합의적 인습사회를 가정하고 범죄의 원인으로 집단 혹은 사회와의 유대의 정도를 강조한다고 볼 때, 이는 집합주의문화를 가진 사회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반면에 규범의 갈등과 복잡, 다양한 가치의 존재를 가정하는 차별접촉이론의 기본전제는 집합주의문화를 가진 사회의 특성보다는 개인주의문화를 가진 이질적인 사회의 특성에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유교적인 전통을 지닌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부모에의 복종, 규범에의 합의, 동조, 친밀한 인간관계가 강조되어 왔으며 또한 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 왔다(Ch'oe, 1973 ; Chong, 1986 ; Shinn, 1986 ; Song and Ginsberg, 1987 ; Lee, 1991). 개인의 행위기준은 개인 자신의 기준보다는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 의해 결정되며, 부모에의 효, 복종, 존경뿐만 아니라 부모의 높은 교육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일종의 집단규범에의 동조로서 여겨져 왔다. 또한 다양한 언어와 인종들이 존재하는 미국사회보다는 한국사회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이며, Taylor와 Hudson (1972)의 국가간 문화이질성의 지표점수(0-1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사회는 0.5점인데 반하여 한국사회는 0점으로 그 문화적 동질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집단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통해 국가간의 집합주의와 개인주의의 점수를 보여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사회는 상대적으로 집단

규범에의 동조를 강조하는 강한 집합주의문화의 성격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Hofstede, 1983 ; Hui and Triandis, 1986 ; Gudykunst et al., 1987).

이러한 점에서 합의적 인습사회를 가정하는 사회통제이론은 상대적으로 집합주의 성격을 갖는 한국사회에 보다 적합할 것이며, 규범의 갈등 및 이질적 사회를 가정하는 차별접촉이론은 집합주의 성격을 지닌 사회보다는 개인주의 성격을 갖는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미국사회에 보다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게 된다.

사회통제이론은 가정과 학교를 인습집단으로 보고 이는 개인의 범죄행위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사회유대의 주요 근원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인의 부모와의 애착, 학교에의 애착 혹은 학교공부에의 투자, 관여 및 참여의 여부는 그 이론에 있어서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반면 사회가 하나의 인습가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사회내의 규범의 갈등을 가정하고 있는 차별접촉이론은 가정과 학교를 인습집단으로 보기보다는 반비행행위유형(혹은 범위반에 부정적인 정의)과 동시에 비행행위유형(혹은 범위반에 긍정적인 정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집단으로 보며, 개인의 비행행위는 개인이 이러한 집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반비행행위유형보다 비행행위유형을 얼마나 많이 습득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결국 사회통제이론은 부모와의 애착, 학교와 관련되는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는 반면, 차별접촉이론에 의하면 부모와의 애착, 학교와 관련되는 요인들은 범위반에 관한 정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Jensen 1972; Matsueda 1982).

집합주의와 개인주의의 논의, 그리고 사회통제 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의 가정 및 주요 주장들을 고려해 볼 때, 사회통제이론에서 중요시하는 부모와의 애착, 학교와 관련되는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동일적이며 집단규범에의 동조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 예측되며,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며 개인주의문화를 가진 미국사회에서는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며,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범위반과 관련된 정의의 비행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 예측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연구를 살펴 보면, 사회통제이론에서 강조하는 가정 및 학교와 관련된 요인들은 집합주의문화를 지닌 동양사회, 한국 (Axenroth, 1983; Lee, 1990; 김준호, 1990), 일본 (Yajima, 1988), 중국 (Sheu, 1988; Yuen, 1988) 혹은 미국내의 동양인의 (Catalano et al., 1992) 비행을 설명하는 데 중요했던 반면, 개인주의문화를 지닌 서구사회, 미국 (Matsueda, 1982), 네덜란드 (Bruinsma, 1992), 캐나다 (Caplan and Leblank, 1985)에서는 차별접촉이론에서 중요시하는 범위반에 관련된 가치, 태도 및 동기가 비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미국내의 많은 학자들이 사회통제이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델구성에서 범위반에 관한 정의를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그것을 엄밀히 측정하지 못하여 차별접촉이론에 관한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²⁾ 최

근의 엄밀한 분석에서 Matsueda와 Heimer (1987)는 미국흑인, 백인의 범죄행위가 모두 범위반에 관한 정의에 의해 설명되며, 사회통제이론에서 중요시하는 사회유대의 요소들은 범위반에 관한 정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사회통제이론보다는 차별접촉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 연구는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을 상이한 문화를 지닌 두 나라 미국과 한국에 적용해 보는 데 있어서 사회통제이론은 집합주의문화를 지닌 한국사회에, 차별접촉이론은 개인주의문화를 지닌 미국사회에 보다 잘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며, 특히 가정과 학교와 관련되는 변인의 중요성이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개인주의문화에서 차별접촉이론의 설명력이 클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차별접촉이론은 미국사회내에서의 상이한 두 인종 집단인 백인집단과 흑인집단에 모두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사회내의 미국백인집단과 흑인집단을 고려하게 된다면,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문화적 측면 이외에 소위 범죄하위문화라는 또 다른 문화의 측면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의 하위문화이론가들에 의하면 미국흑인들은 백인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범죄하위문화 환경속에서 그 문화의 특성을 더욱 배우게 되며 그것을 그들의

2) 기존의 연구들은 차별접촉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어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에 영향을 주는가에 초점을 두어 왔다 (Short, 1957, 1960; Reiss and Rhodes, 1964; Hirschi, 1969).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차별접촉이론에서 강조하는 비행 혹은 반비행행위유형과의 접촉을 엄밀히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차별접촉이론을 검증했다기 보다는 나쁜동료이론 *bad companion theory*에 관한 연구이며 차별접촉이론을 엄밀히 검증할 수 있는 측정의 세련화가 요구된다 (Jensen, 1972; Matsueda, 1982; Jackson et al., 1986; Tittle et al., 1986; Orcutt, 1987; Matsueda and Heimer, 1987; Bruinsma, 1992). 예를 들어 Matsueda (1982)에 의하면 Hirschi가 제시한 사회와의 유대의 요소중의 하나인 신념, 즉 법 혹은 사회규범에 관한 태도는 차별접촉이론에서 중요시하는 범위반에 관한 정의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며 신념은 인습가치만을 고려한 반면(합의적 인습사회를 가정하기 때문에) 차별접촉이론의 정의는 인습 및 이탈, 비행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사회내의 규범의 갈등을 가정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한다.

행동에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Wolfgang and Ferracuti, 1967; Curtis, 1975; Silberman, 1978; Messner, 1983). 또한 긴장이론가들에 의해 주장된 바와 같이 흑인들은 백인과의 경제적, 인종적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또 다른 특성을 안고 있게 된다고 한다(Blau and Blau, 1982; Blau and Golden, 1986; Golden and Messner, 1987; Messner, 1989).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록 하위문화이론과 긴장이론은 개인의 범죄행위의 여부보다는 집단간의 범죄율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은 미국백인과 흑인집단내에서의 성원들의 범죄행위의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을 제시해 준다. 즉 차별접촉이론가들의 주장과 앞에서 본인의 주장과 같이 이질적인 미국사회내의 성원들에게 있어서는 백인과 흑인이라는 상이한 집단과는 관계없이 범위반에 관련된 정의 및 가치의 습득, 내면화의 정도가 비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흑인의 하위문화적 특성과 그 구조적 특성은 미국흑인에게 있어 미국백인과는 분명 구분되는 비행의 요인을 수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문화적,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통제 혹은 유대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의 차이가 미국백인과 흑인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통제이론은 합리적 인습적 사회를 가정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범죄성을 가정한다. 차별접촉이론이 인간은 범죄의 동기를 후천적으로 학습한다고 한다면, 사회통제이론은 인간의 범죄동기를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동기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사회통제 혹은 유대의 정도를 범죄 혹은 비행의 중요한 원인으로 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적 환경으로나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범죄의 가능성을 많이 앓고 있으며 범죄의 충동을 느끼는 미국흑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사회통제 혹은 유대의 여부가 백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주게 된다. 물론 이는 미국흑인이 선천적으로 범죄성을 보다 많이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적,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예상되는 결과일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통제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가정과 학교와 관련된 변수들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미국백인보다는 흑인에게, 특히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범죄하위문화의 특성을 지닌 흑인 빈민지역의 흑인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내의 유대나 결혼가정의 여부는 흑인에게 보다 강하게 나타나며(Farnsworth, 1984; Rosen, 1985; Matsueda and Heimer, 1987; Sampson, 1986, 1987; Gray-Ray and Ray, 1990; Catalano et al., 1992), 학교공부와 관련되는 요인들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 또한 흑인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Liska, 1985; Cernkovich and Giordano, 1992). 특히 Cernkovich와 Giordano(1992)에 의하면 흑인들의 학업에 대한 개인의 노력여부는 그들의 구조적, 인종적 차별 및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상승요인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학업성취의 그 중요성은 백인보다는 더 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들에게 중요한 범죄통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사회통제이론 및 차별접촉이론을 상이한 문화적, 구조적 특성을 갖는 세 인종집단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이론의 차별적 적합성

및 가정, 학교와 관련되는 요인들, 개인의 범위반의 정의 등의 비행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세 집단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Ⅲ. 모델구성과 가설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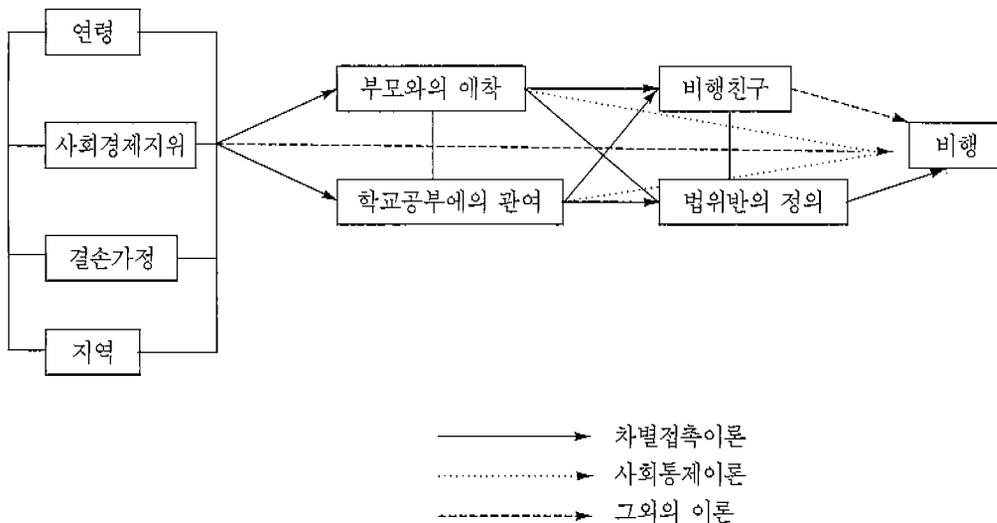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듯이 본 연구는 4개의 사회구조적 요인들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가정의 여부, 거주지역의 범죄정도와 4개의 내적요인들, 부모와의 애착, 학교공부와의 관여, 비행친구와의 접촉, 범위반에 관한 정의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비행행위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사회해체 *social disorganization*의 지표들 가족구조, 사회계층, 거주지역의 범죄율 등의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사회유대의 요소들을 매개로 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차별접촉이

론에 의하면 차별사회 혹은 집단조직 *differential social or group organization*의 지표들 연령 및 계층의 분포, 거주지역의 조직정도, 가정, 학교, 친구집단에서의 사회화과정 등의 요인들이 범위반에 관한 정의를 통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Matsueda and Heimer, 1987). 이 두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구조적 요인들로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가정의 여부, 지역의 특성들을 모델에 사용하고자 하며,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은 내적 변인들인 사회유대의 요소 및 범위반의 정의를 통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Hirschi가 제시한 애착중(부모, 선생 혹은 학교, 친구) 부모와의 애착에 초점을 둔 이유는 이것이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 친구와의 애착은 사회통제이론의 주장과는

〈그림 1〉 비행의 인과모델



달리 비행을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혹은 비행과 아무 관련이 없다

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모델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Jensen, 1972 ; Hindelang,

1973 ; Krohn and Massey, 1980 ; Wiatrowski et al., 1981 ; Agnew, 1985 ; Massey and Krohn, 1986). 그밖에 학교 및 선생과의 애착은 그 개념이 불분명하여 학교에 관련된 요인은 관여에 포함시켰다(자세한 논의는 Krohn and Massey, 1980). 관여란 인습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개인의 투자행위를 의미하는데,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공부에 대한 투자가 그 대표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공부에의 관여를 모델에 사용하기로 한다(Krohn and Massey, 1980 ; LaGrange and White, 1985 ; Marcos et al., 1986 ; Massey and Krohn, 1986 ; Cernkovich and Giordano, 1992). 또한 학교공부에 초점을 두었을 때 Hirschi가 제시한 참여는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의 양을 의미하므로 관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Krohn and Massey, 1980). 범위반에 관한 정의(혹은 Hirschi의 신념)를 모델에 포함시킴으로써 본 모델에서는 Hirschi의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Hirschi의 신념과 차별접촉 이론의 범위반에 관한 정의는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는 점에서(Matsueda, 1982) 차별접촉이론의 논의를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사회화에 중요한 가정, 학교, 친구집단과 비행과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모델을 바탕으로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에 관한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사회구조요인들(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결손가정의 여부, 거주지역의 범죄정도)은 부모와의 애착, 학교공부에의 관여 혹은 신념을 통하여 개인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부모와의 애착, 학교공부에의 관여, 신념의 비행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일 것이다. 또한 사회통제이론은

비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동기요인을 부정하기 때문에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관계는 모두 약화된 사회유대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허위관계라고 본다(Hirschi 1969 : 152-153). 결국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공부에의 관여는 동시에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에 영향을 줄 것이며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관계는 허위관계일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차별접촉이론에 의하면 사회구조요인들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친구집단과 관련된 요인들은 개인의 비행 혹은 반비행행위유형(범위반에 관한 정의)의 습득여부를 통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부모와의 애착, 학교공부에의 관여,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은 범위반에 관한 정의 혹은 신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범위반에 관한 정의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정, 학교, 친구와 관련된 변인간의 인과경로는 기존의 연구들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의 애착과 같은 가정과 관련된 요인은 개인의 초기의 사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가정에서의 개인의 경험은 그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가정, 학교에서의 경험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irschi, 1969 ; Akers et al., 1979 ; Johnson, 1979 ; Wiatrowski et al., 1981 ; Massey and Krohn, 1986 ; Thornberry, 1987). 이상에서와 같이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의 주요 요인들로 구성된 모델을 중심으로 두 이론의 상대적 설명력을 검증하기로 한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이한 세 집단간의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다를 것이 예측된다. 상대적으로 동질적

인 집합주의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차별접촉이론보다는 사회통제이론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 예측되며, 문화적으로 이질적이고 규범의 갈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차별접촉이론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보다 강할 것이 예측된다.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한다면, 한국과 같은 동질적인 집합주의문화의 사회에서는 가정과 학교는 상대적으로 인습적인 가치를 표방하고 가정과 학교에의 동조가 강조되는 반면, 미국과 같은 이질적인 개인주의문화의 사회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의 동조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며 복잡다양한 가치가 가정, 학교를 포함한 여러 집단에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결국 한국과 미국간의 문화의 강조점 및 동질성의 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공부와의 관여의 비행에 관한 영향은 두 나라간에 다를 것이 예측된다. 즉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공부와의 관여의 비행에 관한 영향력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이며 범위반에 관한 정의의 비행에 관한 영향력은 한국에서 보다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차별접촉이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공부와의 관여는 범위반에 관한 정의를 통하여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미국사회내의 백인과 흑인집단의 구조적,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조적, 문화적으로 범위의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더욱 노출되어 있는 흑인집단에게는 가정, 학교와 같은 사회통제 혹은 유대요인들의 비행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을 것이 예상되며, 결국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공부와의 관여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백인집단에서보다는 흑인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IV. 자료 및 측정

세 집단 비교연구에 있어서 본 연구는 1965년 Richmond Youth Project에 의해 얻어진 미국자료와 198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얻은 한국자료를 사용하였다. 미국자료는 샌프란시스코 대도시 지역의 남녀 중·고등학생 5,545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한국자료는 6개 도시의 남자 고등학생 2,775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는데, 무응답 및 분석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외한 한국 남자학생 2,365명, 미국백인 남자학생 1,588명, 미국흑인 남자학생 1,00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집단간 비교연구에 있어서 우선 측정된 변수가 그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유사한지를 그리고 결국 의미있는 비교분석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Armer, 1973 ; Elder, 1976 ; Szalai and Petrella, 1977 ; Triandis and Berry, 1980 ; Nowak, 1989).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문자상의 일치성 즉 한 나라에서 사용된 변수를 정확히 번역하여 사용했는지의 여부이다(Elder, 1976 ; Newman, 1977).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상의 일치성, 즉 그 개념의 일치성의 여부이다. 결국 사용된 측정도구가 이론적인 개념을 명확히 측정했느냐가 중요하다. 측정도구의 선택은 이론적 개념에서 출발해야 하고 하나의 개념을 위해 하나의 측정도구보다는 여러개의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이러한 측정도구들이 과연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확증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 이에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Miller et al., 1981 ; Hui and Triandis, 1985 ; Poortinga, 1989 ; Watkins,

1989). 본 연구는 확증요인분석을 통하여 과연 측정도구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측정도구와 이론적 개념과의 관계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혹은 유사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의 모델에서 사용될 변수중에서 연령은 응답자의 나이를, 사회경제적 지위는 Treiman(1977)의 Standard International Occupational Prestige Scale을, 결혼가정의 여부는 응답자가 실제부모와 같이 사는지의 여부를, 거주지역의 범죄정도는 응답자가 살고 있는 이웃에서 얼마나 범죄 및 일탈문제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측정하였다.³⁾

부모와의 애착은 부모와의 애정적 결속, 부모와의 동일시, 부모와의 친밀한 대화의 정도 등을 말하는데(Hirschi, 1969; CernKovich and Giordano, 1987; Wells and Rankin, 1988; RanKin and Wells, 1990) 아버지가 자신을 잘 이해하는지, 어머니가 자신을 잘 이해하는지, 이 다음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부모와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지, 장애에 관해 부모와 자주 이야기하는지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관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학교, 직업에의 열망 *aspiration*과 기대 *expectation*(Hirschi, 1969; Wiatrowski et al., 1981; Agnew, 1985) 보다는 현재의 학업성적, 학업성적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학교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방과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Krohn and

Mass-ey, 1980; LaGrange and White, 1985; Mass-ey and Krohn, 1986; Cernkovich and Giordano, 1992).⁴⁾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가까운 친구 중 학교에서 처벌을 받았거나 경찰에 의해 붙잡혀간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범위반에 관한 정의는 Matsueda(1982)가 사용한 문항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즉 법에 관한 태도 및 Sykes 와 Matza(1957)의 중화의 기술 *technique of neutralization*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일을 해도 괜찮다” “발각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나는 경찰을 존경한다” “경찰은 오히려 우리가 곤경에 빠지도록 유도한다” “비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해를 주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곤경을 피해 나가기 힘들다”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득을 본다” 등의 7문항을 사용하였다.⁵⁾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행행위 중 남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심각한 비행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는데(예를 들면 폭행 및 절도) 이러한 행위는 어느 사회에서나 심각하게 여겨지는 행위로 국가간의 비교연구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Newman, 1976; Wolfgang et al., 1985; Moffitt, 1989).

3) 본조사는 객관적인 지역의 범죄정도보다는 개인이 인지한 지역의 범죄정도를 사용한다.

4) 이는 학교, 직업에의 열망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고(Johnson, 1979) 열망과 기대는 비행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했다.

5) 한국자료는 이들 7문항중 앞의 2문항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5문항을 위해 거짓변수 *pseudo variable*를 사용하여 이론적 개념인 범위반에 관한 정의를 측정하도록 하였다(이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는 Allison, 1987을 참조).

V. 분석결과

1. 측정모델

본 연구는 Bentler의 EQS 프로그램(Bentler, 1989)을 이용하여 측정모델 *measurement model*과 실제모델 *substantive model*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는데, maximum likelihood method를 이용한 측정모델을 통해 측정도구들이(예를 들면 부모와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는지) 얼마나 이론적 개념(부모와의 애착)을 잘 반영하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측정도구들에서 발생하는 측정오차를 제거함으로써 이론적 개념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⁶⁾

〈표 1〉에서 보듯이 한국인보다는 미국백인이, 미국백인보다는 미국흑인이 보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며 보다 결혼가정율이 높고 보다 문제가 많은 지역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미국흑인집단이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백인과 미국흑인의 측정도구들간의 척도는 일치하나 한국인과의 경우에는 4개의 사회배경적 요인들, 아버지와의 동일시, 학교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비행친구와의 접촉여부, 2개의 범위반에 관한 정의 그

리고 비행행위만이 동일한 척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한국인보다는 미국백인이, 미국백인보다는 미국흑인이 낮은 부모와의 애착(아버지와의 동일시)을 보이며 보다 비행친구와 접촉을 하고 범위반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정도와 범위반의 정의의 정도가 하위문화의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때, 이 결과는 미국흑인이 문화적으로 범위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학교공부와의 관여(학교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있어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 측정도구가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인보다 열심히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한다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관적인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방과후 학교공부를 얼마나 많이하는가의 객관적인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그 척도가 상이하지만 방과후 3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을 고려한다면 한국인이 미국백인보다, 미국백인이 미국흑인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의 경우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자료가 1989년 자료인데 반하여 미국자료가 1965년인 것에 기인했을 것이며 또한 한국인의 대상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Hirschi와 Gottfredson, 1983,

6) 여기서 비슷한 내용의 측정도구들의 측정오차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하는데(Matsueda, 1992)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신을 이해하는지와 어머니는 자신을 이해하는지를, 아버지는 자신을 이해하는지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부모와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지와 장래에 관해 부모와 자주 이야기하는지를, 그리고 현재의 학업성적과 학업성적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의 측정오차들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전체적인 모델의 적합도는 좋지는 않으나 표본수가 클 때는 작은 오차가 큰 Chi-square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Bollen, 1989). Modification Indices에 의하면 앞에서의 4쌍의 측정오차들의 상관관계 이외에 다른 측정오차들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해야 전체적인 모델이 좋아진다고 제시하나 이는 세 집단간에 각각 다르고 이론적인 이유없이 통계에 의존하여 그들의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에서와 같이 4쌍의 측정오차들간의 상관관계만을 가정하였다. 참고로 분석될 모델의 fit은 미국백인의 경우(Chi-square=872.28, d.f.=175, p<.001), 미국흑인의 경우(Chi-square=675.09, d.f.=175, p<.001), 한국인의 경우(Chi-square=254.21, d.f.=85, p<.001)이다.

〈표 1〉

측 정 모 델

이론개념	측정도구	평 균			Lamda 계수			타당도계수		
		백	흑	한	백	흑	한	백	흑	한
연령	연령	14.86	14.79	16.88	1.00	1.00	1.00	1.00	1.00	1.00
지위	지위	4.47	3.51	4.26	1.00	1.00	1.00	1.00	1.00	1.00
결손가정	결손가정	0.30	0.53	0.22	1.00	1.00	1.00	1.00	1.00	1.00
거주지역	거주지역	2.43	2.90	2.11	1.00	1.00	1.00	1.00	1.00	1.00
애착	아버지이해	1.47	1.36	3.35	0.61	0.51	1.07	0.56	0.45	0.49
애착	어머니이해	1.55	1.49	3.78	0.52	0.40	1.05	0.51	0.39	0.55
애착	아버지동일시	2.17	2.00	2.73	1.00	1.00	1.00	0.54	0.47	0.40
애착	공유	1.12	1.10	3.07	0.41	0.54	1.03	0.41	0.55	0.47
애착	대화	1.04	1.07	2.98	0.61	0.72	1.12	0.60	0.69	0.47
관여	성적	2.39	1.89	5.11	0.82	0.53	2.09	0.64	0.47	0.59
관여	성적중요시	2.20	2.35	3.93	1.05	1.13	0.46	0.53	0.56	0.33
관여	학교공부	3.55	3.68	2.72	1.00	1.00	1.00	0.53	0.48	0.71
관여	방과후공부	3.38	3.65	1.44	1.53	1.15	1.22	0.55	0.39	0.61
비행친구	비행친구	1.09	1.48	0.93	1.00	1.00	1.00	1.00	1.00	1.00
정의	성공	2.12	2.55	2.14	1.00	1.00	1.00	0.58	0.51	0.73
정의	발각	2.42	2.86	2.35	0.80	0.72	1.15	0.44	0.35	0.69
정의	존경	2.40	2.58	—	0.97	0.73	—	0.54	0.39	—
정의	경찰	2.59	2.84	—	0.82	0.48	—	0.42	0.23	—
정의	비행	2.77	3.07	—	0.67	0.35	—	0.38	0.19	—
정의	곤경	2.22	2.49	—	0.61	0.95	—	0.38	0.50	—
정의	속임	2.53	2.86	—	0.76	0.67	—	0.43	0.34	—
비행	비행	0.71	0.79	1.36	1.00	1.00	1.00	1.00	1.00	1.00

* 사회경제지위는 0-10점, 결손가정은 0-1점, 비행친구는 0-6점,

거주지역은, 아버지와의 동일시, 학교공부 및 정의의 7문항은 1-5점이고

한국의 경우 애착의 나머지 4문항은 1-5점인 반면 미국의 경우 0-2점,

한국의 경우 성적중요시는 1-5점인 반면 미국의 경우 0-3점,

한국의 경우 방과후 공부는 1시간미만, 1-2, 2-3, 3-4, 4-5, 5시간 이상인 반면

미국의 경우 반시간미만, 반시간, 1시간, 1시간반, 2시간, 3시간 이상이다.

한국의 경우 학교성적은 반등수로 5등 간격으로 하여 1-9점인 반면

미국의 경우 G.P.A. 점수 0-4.0으로 한다.

Farrington, 1986에 의하면 어느 사회에서나 범 죄율은 10대 후반에 가장 높다고 한다).

〈표 1〉의 타당도계수를 통해 측정도구들이 이론적 개념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할만한 지표인가를 알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의 경우 미국백인과 흑인에서는 장래에 관해 부모와 자주 대화를 하는지가, 한국인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는지가, 학교공부와의 관여의 경우 미국백인에서는 학교성적이, 미국흑인에서는 학교성적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가, 한국인에서는 학교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범위반에 관한 정의에서는 세 집단에서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일을 해도 괜찮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타당도를 나타냈다. Lamda계수는 측정도구들의 이론적 개념에 대한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이때 하나의 이론적 개념을 위해 사용되는 여러 측정도구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측정도구를 기준지표로 선정하여 그의 Lamda계수를 1.0으로 하고 이에 대한 측정도구들의 상대적인 비율을 계산한다(Bollen, 1989). 하나의 측정도구를 갖는 이론적 개념(4개의 사회구조적 요인들, 비행친구와의 접촉, 비행)의 Lamda계수는 1.0으로 하고 여러개의 측정도구를 갖는 이론적 개념을 위해서는 국가간에 척도가 같은 측정도구, 즉 부모와의 애착을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동일시, 학교공부와의 관여를 위해서는 학교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범위반에 관한 정의를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일을 해도 괜찮다를 기준지표로 하여 Lamda계수를 1.0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상대적인 Lamda계수는 〈표 1〉에서 보여준다(Lamda계수의 해석의 자세한 논의는 Lee, 1993 참조).

국가간의 비교 혹은 상이한 집단간의 비교연구에 있어서 Lamda계수들의 비율이 집단간에 상이

한지 혹은 유사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애착, 학교공부와의 관여, 범위반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Lamda계수들은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부모와의 애착의 경우 $\text{Chi-square}=79.75, \text{d.f.}=8, p<.001$; 학교공부와의 관여의 경우 $\text{Chi-square}=301.11, \text{d.f.}=6, p<.001$; 범위반의 정의의 경우 $\text{Chi-square}=30.03, \text{d.f.}=7, p<.001$). 그러나 이는 기준지표에 대한 Lamda계수들의 비율이 집단간에 상이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지표 혹은 나머지 측정도구들이 집단간에 상이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결국 집단비교의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Bielby, 1986). Lamda계수의 비율이 집단간에 상이하다면 이는 우리가 다른 기준지표를 사용할 경우 실제모델에서 나타나는 회귀계수들은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우리는 다른 기준지표를 사용하여 실제모델에서의 회귀계수들이 변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Matsueda and Heimer, 1987). 본 결과는 회귀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의미있는 집단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ielby, 1986 참조).

2. 실제모델

실제모델의 결과는 〈표 2-1〉와 〈표 4-2〉에 제시하는데 미국백인의 결과는 〈표 2-1〉(비표준화된 계수)와 〈표 2-2〉(표준화된 계수)에, 미국흑인의 결과는 〈표 3-1〉(비표준화된 계수)와 〈표 3-2〉(표준화된 계수)에, 한국인의 결과는 〈표 4-1〉(비표준화된 계수)와 〈표 4-2〉(표준화된 계수)에 보여진다. 최종 분석의 표본수는 pairwise missing 처리과정을 통한 한국

인 2,195명, 미국백인 1,599명, 미국흑인 951명으로 하였다.⁷⁾

〈표 2-1〉에서 보듯이 미국백인의 경우 사회배경변수들의 비행에 관한 경로는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공부와의 관여, 비행친구와의 접촉 혹은 범위반에 관한 정의에 의해 매개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지역의 범죄정도가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표 2-2〉에서 보듯이 다른 변수의 영향력에 비해서 그 영향력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공부와의 관여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표 2-2〉에서 보듯이 이 영향력 역시 작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공부와의 관여는 주로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범위반의 정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범위반에 관한 정의로서 이는 사회통제이론보다는 차별접촉이론에 보다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표 2-2〉에서 보듯이 범위반에 관한 정의의 비행에 관한 영향도는 다른 요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제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유대의 비행에 관한 영향은 작거나 간접적이며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관계도 허위관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비행을 하는데 있어서 친구의 강압과 상황적 요인을 강조하는 집단과정이론 *group process theory*으로 설명이 가능한데(Briar and Piliavin, 1965; Short and Strodtbeck, 1965), 보다 정확한 측정도구를 통해 범위반에 관한 정의를 측정한다면 차별접촉

이론의 주장대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범위반에 관한 정의를 통해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즉 이 결과는 차별접촉이론의 주장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표 3-1〉에서 보듯이 미국흑인의 경우 사회배경변수들의 비행에 관한 경로는 부모와의 애착, 학교공부와의 관여, 비행친구와의 접촉, 범위반에 관한 정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비록 그 정도는 〈표 3-2〉에서 보듯이 작으나 결손가족의 여부가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의 비행에 관한 경로는 학교공부와의 관여,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범위반에 관한 정의에 의해 매개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공부와의 관여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백인의 경우와는 달리 결손가족의 여부 및 학교공부와의 관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학교공부와의 관여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의 미국백인과 미국흑인의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ext{Chi-square}=4.76, \text{d.f.}=1, p<.05$). 또한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범위반의 정의 또한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공부와의 관여의 경우와는 달리 범위반의 정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ext{Chi-square}=1.38, \text{d.f.}=1, p>.05$). 결국 미국흑인의 경우 학교공부와의 관여가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사회통제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거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관계가 허위관계가 아니라는 점과 범위반의 정의 역시

7) Listwise missing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특히 미국흑인의 경우 무응답의 항목이 많았기 때문에 표본수에서 40%를 잃어 여기서는 pairwise missing 처리를 하기로 한다. 본 결과는 Listwise missing 처리를 하였을 때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으며, 결국 무응답은 무작위적이라는 점에서 분석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2-1〉

미국백인의 실제모델의 비표준화된 계수 (n=1,559)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연령	지위	결혼가정	지역	애착	관여	친구	정의	
1. 애착	-.056*** (.012)	.030** (.012)	-.138*** (.043)	-.116*** (.020)					.086
2. 관여	.059*** (.009)	.040** (.009)	-.128*** (.033)	-.058*** (.016)	.334*** (.041)				.298
3. 친구	.051* (.022)	.050* (.022)	-.051 (.081)	.144*** (.038)	-.203* (.095)	-1.098*** (.121)			.205
4. 정의	-.019 (.010)	.030** (.010)	.011 (.037)	.063*** (.017)	-.260*** (.046)	-.520*** (.062)	.105*** (.013)		.572
5. 비행	-.027 (.015)	.014 (.015)	.010 (.053)	.070** (.025)	-.096 (.068)	-.193* (.095)	.128*** (.020)	.476*** (.094)	.274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2〉

미국백인의 실제모델의 표준화된 계수 (n=1,559)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령	지위	결혼가정	지역	애착	관여	친구	정의
1. 애착	-.159	.083	-.104	-.191				
2. 관여	-.193	.127	-.112	-.111	.388			
3. 친구	.058	.055	-.045	.094	-.081	-.376		
4. 정의	-.052	.081	.008	.101	-.253	-.436	.256	
5. 비행	-.043	.023	.005	.066	-.055	-.096	.186	.282

〈표 3-1〉

미국흑인의 실제모델의 비표준화된 계수 (n=951)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연령	지위	결혼가정	지역	애착	관여	친구	정의	
1. 애착	-.079*** (.015)	.065** (.019)	-.140** (.050)	-.060** (.021)					.100
2. 관여	-.049** (.013)	-.020 (.015)	-.050 (.042)	-.038** (.018)	.355*** (.057)				.271
3. 친구	.059 (.032)	-.035 (.039)	.102 (.106)	.054 (.046)	-.099 (.136)	-.747*** (.187)			.084
4. 정의	-.065** (.016)	-.017 (.019)	.166** (.052)	.066** (.023)	-.002 (.067)	-.726*** (.116)	.065** (.017)		.495
5. 비행	-.050* (.023)	.017 (.025)	.176* (.071)	-.042 (.030)	.079 (.088)	-.631*** (.184)	.055* (.023)	.280* (.139)	.188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2〉

미국흑인의 실제모델의 표준화된 계수 (n=951)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령	지위	결혼가정	지역	애착	관여	친구	정의
1. 애착	-.224	.142	-.112					
2. 관여	-.170	-.054	-.049	-.088	.439			
3. 친구	.064	-.029	.031	.038	-.038	-.230		
4. 정의	-.185	-.039	.135	.126	-.002	-.595	.173	
5. 비행	-.081	.022	.081	-.045	.045	-.293	.082	.159

〈표 4-1〉

한국인의 실제모델의 비표준화된 계수 (n=2,195)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연령	지위	결혼가정	지역	애착	관여	친구	정의	
1. 애착	.006 (.024)	.034** (.012)	-.007 (.038)	-.062*** (.016)					.022
2. 관여	-.084** (.027)	.047*** (.014)	.056 (.044)	-.027 (.017)	.468*** (.057)				.160
3. 친구	.176*** (.044)	.109*** (.022)	.046 (.070)	.153*** (.028)	.045 (.082)	-.806*** (.065)			.181
4. 정의	.075* (.031)	.015 (.016)	-.032 (.050)	.130*** (.020)	-.094 (.059)	-.340*** (.049)	.096*** (.017)		.217
5. 비행	-.011 (.045)	.048** (.022)	.216*** (.069)	.057** (.026)	-.094 (.074)	-.310*** (.058)	.149*** (.022)	.321*** (.049)	.237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2〉

한국인의 실제모델의 표준화된 계수 (n=2,195)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령	지위	결혼가정	지역	애착	관여	친구	정의
1. 애착	.008	.083	-.006	-.119				
2. 관여	-.079	.089	.033	-.041	.367			
3. 친구	.081	.102	.014	.112	.017	-.393		
4. 정의	.060	.024	-.016	.163	-.062	-.284	.165	
5. 비행	-.006	.055	.077	.051	-.044	-.185	.182	.229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복합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표 4-1〉에서 보듯이 매개변수들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가정의 여부, 거주지역의 범죄 정도가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공부와의 관여, 비행친구와의 접촉, 범위에 관한

정의 또한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에서 보듯이 다른 요인과 비교해서 범위에 관한 정의가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 차별접촉이론의 주장과는 반대로 학교공부와의 관여의 비행에 관한 영향이 범위에 관한 정의에 매개되지 않고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통제이론의 주

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통제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관계는 허위 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배경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도 한국인에 대한 결과는 사회통제이론 혹은 차별접촉이론의 논의와는 다른 복합된 결과를 보인다. 미국흑인의 경우와는 일치하나 미국백인과 비교해 볼 때에는 학교공부와의 관여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미국흑인 또한 그 영향력이 유의미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의 세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square=4.78, d.f.=2. $p>.05$)).

위의 미국자료는 일반 남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면, 한국조사는 남자 고등학생에 초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이외에 야간계, 실업계 학생을 포함했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본 연구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자 고등학생에 초점을 두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실제모델의 결과는 <표 5-1>과 <표 7-2>에 제시하는데 미국백인의 결과는 <표 5-1>(비표준화된 계수)과 <표 5-2>(표준화된 계수)에, 미국흑인의 결과는 <표 6-1>(비표준화된 계수)과 <표 6-2>(표준화된 계수)에, 한국인의 결과는 <표 7-1>(비표준화된 계수)과 <표 7-2>(표준화된 계수)에 보여진다. 최종 분석 표본수는 미국백인 861명, 미국흑인 399명, 한국인 1,471명이다.

<표 5-1>에서 보듯이 미국백인의 경우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범위반에 관한 정의로서 이는 사회통제이론보다는 차별접촉이론에 보다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표 5-2>에서 보듯이 범위반에 관한 정의의 비행에 관한 영향도는 다른 요인에 비

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제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유대의 비행에 관한 영향은 간접적이며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관계도 허위관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표 6-1>에서 보듯이 미국흑인의 경우 사회배경변수들의 비행에 관한 경로는 부모와의 애착, 학교공부와의 관여, 비행친구와의 접촉, 범위반에 관한 정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앞의 <표 3-1>의 경우와는 달리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공부와의 관여의 비행에 관한 경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범위반에 관한 정의에 의해 매개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회통제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유대의 비행에 관한 경로는 간접적이며 차별접촉이론의 주장대로 범위반에 관한 정의만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6-2>에서 보듯이 범위반에 관한 정의의 비행에 관한 영향도도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미국백인, 흑인의 결과와는 달리 한국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 범위반에 관한 정의뿐만 아니라 학교공부와의 관여 또한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별접촉이론의 주장과는 반대로 학교공부와의 관여의 비행에 관한 영향이 범위반에 관한 정의에 매개되지 않고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통제이론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통제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관계는 허위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배경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도 한국인에 대한 결과는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의 논의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미국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학교

〈표 5-1〉 미국백인의 실제모델의 비표준화된 계수 (n=861)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연령	지위	결혼가정	지역	애착	관여	친구	정의	
1. 애착	-.024 (.017)	.037** (.017)	-.054 (.054)	-.101*** (.026)					.050
2. 관여	.080*** (.016)	.038** (.014)	-.168*** (.051)	.063** (.025)	.365*** (.060)				.245
3. 친구	.062 (.035)	.023 (.030)	-.074 (.111)	.190*** (.053)	-.386** (.127)	-.940*** (.132)			.228
4. 정의	.001 (.014)	.012 (.012)	.029 (.046)	.058** (.022)	-.237*** (.056)	-.406*** (.063)	.098*** (.016)		.592
5. 비행	-.019 (.023)	.037 (.020)	.005 (.072)	.047 (.035)	-.017 (.091)	-.154 (.111)	.065* (.027)	.730*** (.158)	.283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2〉 미국백인의 실제모델의 표준화된 계수 (n=861)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령	지위	결혼가정	지역	애착	관여	친구	정의
1. 애착	-.062	.109	-.043	-.168				
2. 관여	-.198	.108	-.128	-.102	.354			
3. 친구	.058	.024	-.021	.116	-.142	-.356		
4. 정의	.002	.036	.024	.099	-.244	-.430	.274	
5. 비행	-.028	.060	.002	.043	-.010	-.088	.098	.395

〈표 6-1〉 미국백인의 실제모델의 비표준화된 계수 (n=339)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연령	지위	결혼가정	지역	애착	관여	친구	정의	
1. 애착	-.010 (.031)	.052* (.024)	-.172** (.067)	-.067* (.030)					.064
2. 관여	-.010 (.032)	-.024 (.024)	-.074 (.064)	-.068* (.030)	.404*** (.097)				.229
3. 친구	-.110 (.085)	-.173** (.062)	.135 (.169)	.042 (.079)	-.086 (.225)	-.877** (.276)			.105
4. 정의	-.039 (.038)	-.057* (.029)	.141 (.076)	.017 (.035)	-.027 (.101)	-.708*** (.159)	.076** (.025)		.615
5. 비행	-.031 (.055)	.048 (.044)	.012 (.115)	-.040 (.050)	.200 (.144)	-.382 (.315)	.058 (.040)	.700* (.325)	.257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6-2〉

미국흑인의 실제모델의 표준화된 계수 (n=399)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령	지위	결혼가정	지역	애착	관여	친구	정의
1. 애착	-.018	.134	-.164	-.138				
2. 관여	-.018	-.064	-.074	-.147	.421			
3. 친구	-.064	-.138	.040	.027	-.027	-.262		
4. 정의	-.067	-.135	.123	.032	-.024	-.626	.225	
5. 비행	-.027	.059	.006	-.039	.096	-.176	.089	.362

〈표 7-1〉

한국인의 실제모델의 비표준화된 계수 (n=1,471)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령	지위	결혼가정	지역	애착	관여	친구	정의	R ²
1. 애착	-.015 (.032)	.048** (.015)	.030 (.048)	-.048** (.018)					.022
2. 관여	-.063 (.038)	.033 (.018)	.079 (.057)	-.016 (.022)	.462*** (.069)				.135
3. 친구	.146** (.058)	.080** (.028)	-.021 (.088)	.138*** (.033)	-.027 (.095)	-.692*** (.069)			.156
4. 정의	.079 (.041)	.011 (.019)	-.008 (.062)	.099*** (.024)	-.057 (.066)	-.303*** (.052)	.099*** (.020)		.184
5. 비행	-.028 (.045)	.071*** (.022)	.246*** (.069)	.055* (.026)	-.085 (.074)	.281*** (.058)	.143*** (.022)	.292*** (.049)	.206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7-2〉

한국인의 실제모델의 표준화된 계수 (n=1,471)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령	지위	결혼가정	지역	애착	관여	친구	정의
1. 애착	-.016	.112	.022	-.092				
2. 관여	-.052	.059	.043	-.022	.346			
3. 친구	.062	.074	-.006	.104	-.011	-.361		
4. 정의	.058	.017	-.004	.129	-.038	-.273	.172	
5. 비행	-.015	.081	.087	.051	.041	-.181	.177	.208

공부에서의 관여의 비행에 관한 영향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VI. 결 론

이상의 결과는 예측대로 보다 이질적인 미국사회에서는 사회통제이론보다는 차별접촉이론이 그 설명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동질적이고 집합주의문화를 가진 한국사회에서는 차별접촉이론보다는 사회통제이론이 보다 강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학교공부와 관련된 요인이 미국과 비교해서 비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집합주의와 개인주의 문화에서 오는 문화의 차이라고 잠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전체 표본을 분석하였을 때에 미국흑인의 경우도 그 영향력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흑인의 구조적, 문화적 특성에 의해 기인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남자 고등학생만을 분석한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통해, 결국 집합-개인주의 문화의 차이의 중요성이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의

상대적 설명력에 보다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조적 이론가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모델안에 구조적 불평등, 차별 등의 구조적 요인을 첨가한다면, 흑인집단내에서의 학교공부에서의 관여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되리라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중학생을 포함시켰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사회유대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는 연령집단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은 한국사회에서의 비행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 보았듯이 두 이론은 그 일반성의 정도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이론의 일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중국, 일본과 같은 동양사회와 다른 서구사회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적용은 또한 위의 결과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사회들간의 문화적 속성의 차이로 인해 각 사회에 적합한 이론이 다를 수 있으나 어느 사회에나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일반이론의 구성 또한 요구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준호. 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에 대한 압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113-147.
- Agnew, Rober. 1985.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 Longitudinal Test." *Criminology* 23: 47-61.
- Akers. R.L., M.D. Krnhn, L. Lanza-Kaduce and M. Radosevich. 1979.
"Social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A Specific Test of a General T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3: 114-53.
- Allision, P.D. 1987.
"Estimation of Linear Models with Incom-

- plete Data," in *Sociological Methodology* 1987, edited by C. Clogg. San Francisco : Jossey Bass.
- Archer, D. and R. Gartner. 1984.
Violence and Crime in Cross-Perspectiv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Armer, M. 1973.
"Methodological Problems and Possibilities in Comparative Research," in *Comparative Social Research : Methodological Problems and Strategies*, edited by M. Armer and A. D. Grimshaw. New York : Wiley.
- Avinson, W.R. and P.L. Loring. 1986.
"Population Diversity and Cross-national Homicide : The Effects of Inequality and Heterogeneity," *Criminology* 24 : 733-49.
- Axenroth, J.B. 1983.
"Social Class and Delinquency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0 : 164-82.
- Bentler, P.M. 1989.
EQS : Structural Equations Program Manual, *BMDP Statistical Software*, INC.
- Bielby, W.T. 1986.
"Arbitrary Metrics in Multiple-Indicator Models of Latent Variable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5 : 3-23.
- Blau, J. and P.M. Blau. 1982.
"The Cost of Inequality : Metropolitan Structure and Violent Cri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 114-29.
- Blau, P.M. and R.M. Golden. 1986.
"Metropolitan Structure and Criminal Violence," *Sociological Quarterly* 27 : 15-26.
- Bollen, K.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John Wiley and Sons.
- Braithwaite, J.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iar, S. and I. Piliavin. 1965.
"Delinquency, Situational Inducements, and Commitment to Conformity," *Social Problems* 13 : 35-45.
- Bruinsma, G.J.N. 1992.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Reconsidered : An Extension and Its Empirical Test,"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8 : 29-49.
- Bursik, R.J. and J. Webb. 1982.
"Community Change and Patterns of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 : 24-42.
- Bursik, R.J. 1986.
"Ecological Stability and the Dynamics of Delinquency," in *Communities and Crime*, edited by A.J. Reiss and M. Tonr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rsik, R.J. 1988.
"Social Disorganization and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roblems and Prospects," *Criminology* 26 : 519-51.
- Caplan, A. and M. Leblanc. 1985.
"A Cross-Cultural Verification of a Social Control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9 : 123-37.
- Catalano, R.F., D.M. Morrison, E.A. Wells, M.

- R. Gillmore, B. Iritani and D.Hawkins. 1992.
 "Ethnic Differences in Family Factors related to Early Drug Initia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3 : 208-17.
- Cernkovich, S.A and P.C. Giordano. 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 295-321.
- Cernkovich, S.A. and P.C. Giordano. 1992.
 "School Bonding, Rac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 261-91.
- Ch'oe, Chae-Sok. 1973.
 "Family Relations and Education in Korea," *Korea Journal* 13 : 43-7.
- Chong Won-Shik. 1986.
 "Zeal for Education," *Korea Journal* 26 : 45-51.
- Cohen, A.K. 1955.
Delinquent Boys, New York : Free Press.
- Curtis, I. 1975.
Violence, Race and Culture, Lexington, MA : D.C. Heath.
- Elder, J.W. 1976.
 "Comparative Cross-National Methodology," in *Annual Review of Sociology*, edited by A. Inkeles. Palo Alto, CA : Annual Reviews, Inc.
- Farnsworth, M. 1984.
 "Family Structure, Family Attributes and Delinquency in a Sample of Low-Income, Minority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 349-63.
- Farrington, D. 1986.
 "Age and Crime," in *Crime and Justice*, edited by N. Morris and M. Tonr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rtner, R. 1990.
 "The Victims of Homicide : A Temporal and Cross-national Comparis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 92-106.
- Golden, R.M. and S.F. Messner. 1987.
 "Dimensions of Inequality and Rates of Violent Crime," *Criminology* 25 : 525-41.
- Gove, W.R. and R.D. Crutchfield. 1982.
 "The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Sociological Quarterly* 23 : 301-19.
- Gray-Ray, P. and M.C. Ray. 1990.
 "Juvenile Delinquency in the Black Community," *Youth and Society* 22 : 67-84.
- Gudykunst, W.B., S. Yang and T.Nishida. 1987.
 "Cultural Differences in Self-Consciousness and Self-Monitoring," *Communication Research* 14 : 7-34.
- Hansmann, H.B. and J.M. Quigley. 1982.
 "Population Heterogeneity and the Sociogenesis of Homicide," *Social Forces* 61 : 206-24.
- Hindelang, M.J. 1973.
 "Causes of Delinquency," *Social Problems* 20 : 471-87.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 Hirschi, T., and M. Gottfredson. 1983.
 "Age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 : 552-84.
- Hofstede, G. 1983.

- "Dimensions of National Cultures in Fifty Countries and Three Regions," in *Explication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edited by J. Deregowski, S. Dzuirawiee and R. Annis, Lisse : Swets and Zeitlinger.
- House, J.S. 1981.
 "Social Structure and Personalitiy," in *Social Psycholoty : Sociological Perspectives*, edited by M. Rosenberg and R.H. Turner. New York : Basic Books.
- Hui. C.H. and H.C. Triandis. 1986.
 "Measurement in Cross-Cultural Psychology : A Review and Comparison of Strategies," *journal of Corss-Cultural Psychology* 16 : 131-52.
- Jackson, E.F., C.R. Tittle, and M.J. Burke. 1986.
 "Offense-Specific Models of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Process," *Social Problems* 33 : 335-56.
- Jensen, G.F. 1972.
 "Parents, Peers and Delinquent Action : A test of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 562-75.
- Johnson, R.E. 1979.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Origins. Cambridge Univ. Press.
- Kelly, D.H. and W.T. Pink. 1973.
 "School Commitment, Youth Rebellion and Delinquency," *Criminology* 10 : 473-85.
- Kohn, M.L. 1987.
 "Cross-National Research as an Analytic Strate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 713-31.
- Kornhauser, R. 1978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rohn, M.D. and J.L. Massey. 1980.
 "Social Control and Delinquent Behavior : An Examination of the Elements of the Social Bond," *Sociological Quarterly* 21 : 529-543.
- Krohn, M.D. 1978.
 "A Durkeimian Analysis of International Crime Rates," *Social Forces* 57 : 654-70.
- LaGrange, R.L. and H.R. White. 1985.
 "Age Differences in Delinquency : A Test of Theory," *Cirminology* 23 : 19-45.
- Lee Seong-Sik. 1993.
A Cross-Population Test of Social Control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ies of Delinquency : Koreans, American Blacks, and American Nonblacks, Ph. D. dissertation paper,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Lee Yongsook. 1991.
 "Koreans in Japan and the United Sates," in *Minority Status and Schooling : A Comparative Study of Immigrant and Involuntary Minorities*, edity by M.A. Gibson and J.U. Ogbu, Garland Pjblishing, INC.
- Lee Yoon Ho. 1990.
 "An Integration and Elaboration of Theory to Explain the Delinquency of Korean Boy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14 : 25-39.
- Liska, A.E. and M.D. Reed. 1985.
 "Ties to Conventional Institutions and De-

- linquency : Estimat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 547-60.
- Loeber, R. and M. Stouthamer-Loeber. 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Juvenile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in *Crime and Justice* Vol 7, edited by M.Tonry and N.Morri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cos, A.C., S.J. Bahr, and R.E. Johnson. 1986. "Test of a Bonding/Association Theory of Adolescent Drug Use," *Social Forces* 65 : 131-61.
- Massey, J.L. and M.D. Krohn. 1986.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n Integrated Social Process Model of Deviant Behavior," *Social Forces* 65 : 106-34.
- Matsueda, Ross L. 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 489-504.
- Matsueda, Ross L. and Karen Heimer. 1987. "Race, Family Structure, and Delinquency : A Test of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Social Control The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 826-40.
- Messner, S.F. 1982. "Societal Development, Social Equality, and Homicide : A Cross-National Test of a Durkheimian Model," *Social Forces* 61 : 225-40.
- Messner, S.F. 1983. "Regional and Racial Effects on the Urban Homicide Rates : The Subculture of Violence Revisit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 : 997-1007.
- Messner, S.F. 1989. "Economic Discrimination and Societal Homicide Rates : Further Evidence on the Cost of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 597-611.
- Miller, J., K.M. Slomczynski, and R.J. Schoenberg. 1981. "Assessing Comparability in Cross-National Research : Authoritarian-Conservatism in Different Sociocultural Setting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4 : 178-91.
- Moffitt, T.E. 1989. "Accommodating Self-Report Methods to a Low-Delinquency Culture : A Longitudinal Study from New Zealand," in *Cross-National Research in Self-Reported Crime and Delinquency*, edited by M.W. Klein, NATO ASI Series.
- Newman, G.R. 1976. *Comparative Deviance*. New York : Elsevier.
- Newman, G.R. 1977. "Problems of Method in Comparative Crimin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1 : 17-31.
- Nowak, S. 1989. "Comparative Studies and Social Theory," in *Cross-National Research in Sociology*, edited by M.L. Kohn, Sage Publications.

- Orcutt, J.D. 1987.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Marijuana Use : A Closer Look at Sutherland," *Criminology* 25 : 341-58.
- Poole, E.D. and R.M. Regoli. 1979.
 "Parental Support, Delinquent Friends, and Delinquency : A Test of Interaction Effect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0 : 188-93.
- Poortinga, Y.H. 1989.
 "Equivalence of Cross-Cultural Data : An Overview of Basic Issu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4 : 737-56.
- Rankin, J.H. and L.E. Wells. 1990.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s and Direct Controls on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 140-65.
- Reiss, A.J., Jr. and L. Rhodes. 1964.
 "An Empirical Test of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 : 5-18.
- Rosen, L. 1985.
 "Family and Delinquency : Structure or Function?," *Criminology* 23 : 553-73.
- Sampson, R.J. 1986.
 "Neighborhood Family Structure and the Risk of Personal Victimization, in *The Social Ecology of Crime*, edited by J.M. Byrne and J.R. Sampson. New York : Springer-Verlag."
- Sampson, R.J. 1987.
 "Urban Black Violence : The Effect of Male Jobless and Family Disru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 348-82.
- Sampson, R.J. and W.B. Groves.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 Testing Social-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 774-802.
- Shaw, C.R. and H.D. McKay. 1969.
Delinquency and Urban Areas. Rev. e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eu Chuen-Jim. 1988.
 "Juvenile Delinquency in the Republic of China : A Chinese Empirical Study of Social Control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12 : 59-71.
- Shinn D.C. 1986.
 "Educ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A Cross-Cultural Perspective," *Public Opinion Quarterly* 50 : 360-70.
- Short, J.F. Jr. 1957.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Delinquency," *Social Problems* 4 : 233-39.
- Short, J.F. Jr. 1960.
 "Differential Association as a Hypothesis : Problems of Empirical Testing," *Social Problems* 8 : 14-25.
- Short, J.F. Jr and F.L. Strodtbeck. 1965.
Group Process and Gang Delinquenc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lberman. C.E. 1978.
Criminal Violence and Criminal Justice, New York : Random House.
- Skogan, W.G. 1988.
 "Community Organizations and Crime," in

- Crime and Justice : A Review of Research, Vol 10*, edited by M. Tonry and N. Morri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ong Myung-Ja and H.P. Ginsberg. 1987.
“The Development of Informal and Formal Mathematical Thinking in Korean and U. S.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 1286-96.
- Sutherland, E.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Fourth Edition. Philadelphia : Lippincott.
- Sutherland, E.H. & Donald Cressey. 1978.
Criminology, Philadelphia : Lippincott.
- Sykes, G.M. and D. Matza. 1957.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 : 664-70.
- Szalai, A. and R.Petrella. 1977.
Cross-National Comparative Survey Research. New York : Pergamon.
- Taylor, C.L. and M.Hudson. 1972.
World Handbook of Political and Social Indicators, 2nd edition.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Thornberry, T.P. 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 : 863-91.
- Tittle, C.R., M.J. Burke, and E.F. Jackson. 1986.
“Modeling Sutherland’s Theory of Differential Association : Toward an Empirical Clarification,” *Social Forces* 65 : 405-32.
- Treiman, D.J. 1977.
Occupational Presti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 Academic Press.
- Triandis, H.C. and J.W. Berry. 1980.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Boston : Allyn and Bascon, Inc.
- Triandis, H.C., R.Bontempo and M.J. Villareal.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 323-38.
- Triandis, H.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 506-20.
- Watkins, D. 1989.
“The Role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Cross-Cultura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4 : 685-701.
- Wellford, C. 1974.
“Crime and the Dimensions of Nations,” *Journal of Criminology and Penology* 2 : 1-10.
- Wells, L.E. and J.H. Rankin. 1988.
“Direct Parental Control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6 : 263-85.
- Wiatrowski, M.D., D. Griswold, and M. Roberts. 1981.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 525-41.
- Wolfgang, M.E. and F. Ferracuti. 1967.
The Subculture of Violence, London : Tavistock.
- Wolfgang, M.E., R.M. Figlio, P.E. Tracy and S. I. Singer. 1985.

The National Survey of Crime Severity.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Yajima, Masami. 1988.

“Predelinquent Student Subcultures in Japan : A Comparative Analysis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

plied Criminal Justice 12 : 159-75.

Yuen Gwenson. 1988.

“A Cross-Cultural Perspective to Juvenile Offenders in the U.S. : A Chines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12 : 89-94.